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모날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48호 현대불교
2007년 10월 10일(음력 8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벌써 날씨는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췌바퀴 돌 듯 차나잡나 변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만 집착하여 물질 50%만 놓고 골리러니가 맞지 않습니다.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맞먹어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깥에서 끄달리고, 바깥으로 이름을 찾고, 바깥으로 형상을 찾고, 바깥으로 허공을 보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시니까 50%는 감추어져서 100%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나 뭐가 하나라도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걸리고 액난이 거들거들 닥쳐오고, 내 몸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모두 회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셨으리라 믿고, 오늘은 살아나가기에 어떠한 고난이 생길 때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오시는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과 다른가 안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액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안고 옵니다. 그 안고 오는 고난 액난이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악이 술술 풀려 나오고, 액이 술술 풀려나오고, 병고 술술 풀려나오고 모두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업이 지어진 관계로 그렇게 풀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가 되말겨 넘어간 되입력이 돼서 앞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나는 생각하면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 될 가져왔다면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내게도 여러분의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 때 광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작용을 할 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양면이 합쳐지면 전자와 전자가 없어도 그 에너지광만 나오게 돼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없어지고 불만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에 성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좁게 보면 내가 하고 내가 했다 하겠지만 넓게 본다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공(空)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똑불

장군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 아바가 애를 낳아도, 아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가 돌아가죠.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게 없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체 중생이 다 그 무심(無心)에 와서 닿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무심이기 때문에, 들어놓는 것도 두드러짐이 없고, 그것을 많이 골려서 내보내도 또 주는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영은 영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왜 묘하냐? 그것은 체가 없어서, 만물을 목신 한 가지로 비유할 때, 목신과 내 마음이 한데 한마음이 된다면 내가 목신이 될 수 있고 목신도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면 탑이 난다고 하는 것도 들어안까 닭인데 그 마음을 내 마음에도 넣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때는 잘라도 꿩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두 신중단을 만들어놓고 영가 위패를 붙여놓고 하는데 그것을 모두 없애도,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위패는 치워도 된다 이겁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은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 귀가 번쩍 뜨이죠. 어 인간에 수만 번을 들어서 흘러져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감응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감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잘 침착하게 들으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시고, 침착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생전에 마음으로 항상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만 골려서 생각하고, 이익하게만 골려서 생각하고, 이익하게 골려서 말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구멍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소립니다. 그냥 해버리는 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지만 그게 아주 저중해서 현실로 나오는 무서운 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일해서 돌아갈 때, 바로 두 전자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 하는 거는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



그림 · 최주현

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력만 즉, 에너지광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니 하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유전성으로 오는 사람, 영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 등 갖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병원에서 100%를 다 해결한다고는 못 합니다. 과거로부터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신계의 발전을 아니 한다면 그걸 대처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65%든 60%든 대처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 몸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내 가정도 이끌어내지 못하

나. 넓게 생각하세요. 좁게 개별적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한 가정이라면 한 방통 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항상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왜, 나는 나가는데 안 나가느냐?'고 온통 야단들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내 주인공에다가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줄 수 있고, 성사가 되는 것도 거기로 성사가 안되는 것

도 거기로,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맡기고 놓았을 때 가정이 점점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전등은 다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것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아등바등하면서 온통 앓를 태우니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가 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 나오지 못하고, 부드러운 행 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모두가 악화가 되는 거죠.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너그럽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벌써 현실로 수익 개나 되는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딴 겁니까? 미래는 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요. 그럼 그 배낭 속에, 이 몸을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배낭 속에 그렇게 수익업을 거치면서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이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가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앞서의 것은 무너져 없어지고 현실에 좋게 생각해서 새로 맡기는 것만이 풀려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속명통(宿命通)이라고 하죠. 비교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거죠. 과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해도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안되긴 뭐가 안되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인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죠.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없어요. 무효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화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화두예요. 화두를 받을 것도 없고 풀 것도 없어요. 그대로 내가, 내 주인공이 화두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일을 하나 똥을 누나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게 없어요. 화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을 모두 한데 합해서 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22면으로 계속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통)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 10월 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 큰스님께서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총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은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